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 그 현황과 성지식, 성태도와의 상관관계*

박 효 정** · 강 속 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되면, 부모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을 함으로써 자율성을 획득하면서 생활 범위 또한 넓어진다(Park & Kim, 2013). 그리하여 청소년기보다 더 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이성 관계를 통하여 성에 대한 태도를 확립하거나 성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학생은 처음으로 부모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되어, 자유를 맞이하게 되는데 현대사회의 대학생들은 이 자유를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많이 쓰고 있다(Lim, Park, & Jang, 2007; Young, 1998). 대학생들은 자가 학습 시간 증가, 이메일 혹은 사이버 캠퍼스를 이용한 의사소통 증가, 온라인 서적 보급의 확산, 인터넷 강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 앞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대학생들은 사이버섹스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고 그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아졌다. 그 결과 인터넷 중독 못지않게 사이버섹스 중독이 대학생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특별한 관심 또는 교육이 필요하다(Remington & Gast, 2007).

한국의 대학생은 성인초기에 속하면서 동시에 청소년 후기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몇 가지 발달 과업들 중 몇 가지를 대학 입시를 이유로 그 이후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비거스트는 청소년의 발달 과업 10가지를 제시하고 많은 이들을 그 발달과업을 청소년의 지적 정신적 성숙의 기준으로 삼아왔는데(Havighurst, 1972) 이 중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독립심을 기르는 것과 남녀 동년배와 좀 더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의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는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과정이거나, 처음으로 성숙한 이성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들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버섹스를 접하게 되어 중독에 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섹스(cybersex)란 일반적으로 인터넷 혹은 무선 정보 통신망 안에서 사이버 음란물을 통하여 특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건강증진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11-3).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교신저자 E-mail: hyojungp@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 초빙교수

투고일: 2013년 8월 19일 심사회의일: 2013년 9월 24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30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Hyojung.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Tel: 82-2-3277-2824 Fax: 82-2-3277-2850 E-mail: hyojungp@ewha.ac.kr

정 대상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나 움직임을 가리킨다(Kim & Kwak, 2011). 이런 사이버섹스는 상당한 사회적, 직업적, 가족관계적, 심리학적 문제를 야기하며 지속될 경우 통제가 어려운 중독 상태에 이르게 한다(Young, 1998). 사이버섹스 중독은 인터넷 중독의 하위영역이지만 인터넷 중독이라는 문제와 섹스중독이라는 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할 만하다. 또한 성생활에 대하여 사회 통념적으로 허락된 대학생이 사이버섹스라는 문화를 향유하고 중독되면서 그들의 미래 정신건강과 성에 대한 태도와 습성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사이버섹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과 편리성이다(Watters, 2001). 사이버섹스는 굳이 상점을 방문하여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구입할 필요 없이, 또한 신분의 노출을 피하고 방이나 사무실에서 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와 동시에 외출을 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심지어는 학교 도서관에서도 접속할 수 있으며 준비가 필요 없이 남은 시간에 즉흥적으로도 접할 수 있다는 편리성도 있다. 이런 특성들로 인하여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경제적 수입과 시간에 제한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편리하고 경제적인 유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섹스 중독은 일상생활의 장애로 이어지기 쉬우며, 온라인 접속과 관련하여 강박적인 의존성을 보이지만, 사이버섹스 중독자들이 인터넷 중독자와 다른 점은 죄책감, 수치심, 혹은 타인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Kim, 2003). 이렇게 사이버섹스 중독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이 문제를 개선, 완화 또는 치료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사이버섹스 중독자도 다른 약물 중독과 같이 처음에는 부정으로 시작하여, 거짓말과 거짓행위로 이어지며, 사이버섹스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며, 결국 과도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직무와 학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 Kwak, 2011). 이런 사이버섹스 중독이 장기화 될 경우, 사이버섹스가 모든 문제의 일시적 탈출구로 사용되며, 오프라인에서의 대인관계에, 특히 직장과 가족 내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Young, 2008). 또한 사이버섹스 중독은 대학생들의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습관으로 이어질 것이며, 운동량도 감소시킬 것이다.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과 같이 특정 물질에 의한 것이 아닌 대학생의 필수 항목인 컴퓨터와 관련된 사이버섹스 중독은 자연스럽게 학교생활과 함께 시작될 수 있으며 결국 개인의 일상생활, 대인관계,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대학생의 11%가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으며, 2%는 고위험 인터넷 중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Korea Statistics, 2011).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통계자료는 나와 있지 않으나, Young (2004)에 따르면 사이버섹스 중독자는 인터넷 중독자들의 1/5로 산정된다고 하므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2%가 사이버섹스에 중독되었다고 추정 해 볼 수 있겠다(Kim & Kwak, 2011).

외국의 연구를 보면 질적연구와 양적연구 모두 존재하며, 연구대상도 청소년부터 청장년층까지 다양하다. 연구 주제도 서술적 연구부터 관련 또는 예측 요인 파악, 신체 정신적 영향 파악, 배우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하였다(Cooper, Delmonico, Griffin-Shelley, & Mathy, 2004; Schneider, 2001; Schwartz & Southern, 2000). 그에 반하여 국내 연구로는 소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불과하며(Kim, 2003), 조금 광범위한 주제이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도 초등학교 내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Jang & Choi, 2012; Jung & Shim, 2012; Oh, 2005). 성지식 혹은 성태도와 함께 그와 관련된 성행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고(Ha & Kim, 2009; Kim & Kim, 2008), 성지식이 많을수록, 성에 대하여 허용적일수록 성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되는데, 성행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이버섹스와는 어떤 관계일지 파악하여 사이버섹스와 관련된 중재를 계획할 때 활용 할 수 있겠다. 또한 사이버섹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혹은 어떤 교육 혹은 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를 시작으로 위와 같은 연구도 추후 이루어져야 하겠다.

성지식과 성태도는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 사이버섹스, 성교육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졌던 개념이며(Koo & Kim, 2007) 대학생의 성건강과도 관련하여 다루어졌던 개념이다. 대학생의 성태도는 성에 대하여 얼마

나 허용적인지에 따라 성행동과 사이버섹스 중독과도 직결될 수 있으며, 다양한 성건강 증진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겨진다. 성지식은 성교육을 통하여도 습득되지만 음성적으로 인터넷이나 잡지를 통하여 습득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성지식 수준도 낮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다 (Shin, Park, & Hong, 2010). 이에 성지식이 사이버섹스 중독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성지식과 유의하게 상관성이 있다면 사이버섹스와 관련된 성지식 보급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은 추후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졸업 후 대인관계와 업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의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중재는 대학교 내 성 건강과 관련된 과목을 통하여, 소규모 토의 집단 모임을 통하여, 또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할 수 있는데, 선별된 올바른 건강 자료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보건교사, 간호학과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연구결과와 현황보고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을 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를 파악한 후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섹스 중독 차이를 알아봄으로서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한국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를 확인한다.
- 한국 대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한국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는

횡단적 조사연구(cross-sectional study)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2,833명, 대전/충북/충남지역 979명, 부산/울산/경남지역 803명, 대구/경북지역 647명, 전북/전남/광주지역 678명/ 제주지역 60명으로 전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하여,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 계열 총 6,000명의 전국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나이, 성별, 학년, 종교유무, 전공분야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결혼여부, 경제생활 수준, 거주 형태 등이 포함되었다. 그 중 경제생활 수준은 자기보고식의 질문이었으며 상, 중, 하로 답할 수 있었다.

2) 성지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지식에 대한 도구는 Jeon, Lee와 Rhee (2004)가 네 개의 성 지식 도구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한 후 보건학 및 간호학을 전공한 교수 3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쳤으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생식생리, 성 심리, 임신, 피임과 낙태, 성병과 AIDS, 성폭력. 답안은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의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을 맞혔을 경우 1점으로 계산하여 가능한 점수 범위는 0에서 35점이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값은 .85 (Jeon, Lee, & Rhee, 200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9였다.

2) 성태도

성태도는 Kang (2007)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35문항의 도구를 바탕으로 Shin, Park과 Hong (2010)이 전문가 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쳐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 혹은 미신'에 대한 4문항을 추가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39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가능한 점수 범위는 39에서 195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7이었다.

3) 사이버섹스 중독

Young (2001)이 개발한 Cyber-sexual Addiction Index (CAI)를 Kim (2003)이 수정, 변안한 도구로, 2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사이버섹스에 소비하는 시간, 사이버섹스에 대한 인식, 사이버섹스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 여부, 사이버섹스로 인한 대인관계 변화, 사이버섹스로 인한 수면 장애, 보상으로 사이버섹스 이용 등을 포함한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0에서 100이며, 본 연구에서는 Kim (2003)에서 사용한 분류를 사용하여, 총점이 30점 이하면 비중독, 31-49 점이면 경미 중독집단(mild), 50-79면 중등 중독집단(moderate), 80점 이상이면 중증 중독집단(severe)으로 나누었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값은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6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서울시 대학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친 후, 통계학과 교수의 자문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Proportional Quota Sampling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사전에 전국 대학생의 남:녀(6:4), 4년제 대학교: 전문대(7:3) 학생수의 비율을 파악하여(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그 비율에 따라 지역별 표본 집단 선정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해 대학교 및 전문대학을 추출하여 자료수집 장소 및 학생수를 결정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5개 대학교(C, E, K, P, W 대학교)와 1개 전문대학(J 대학)을 중심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출된 187개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보조원이 도서관, 매점, 학생문화관을 방문하여 2011년 5월 3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보조원에게는 미리 연구방법등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였다. 설문지 내용의 특성상 기명으로 할 경우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조사하였다. 설문 응

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비에 근거하여 표본수를 6,000명(전수의 0.2%)으로 하였고, 때문에 어떤 대학의 학생이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폐기된 설문지가 있으면 그 학교 다른 학생의 설문을 시행하여 6,000명 충족을 할 때까지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보상의 의미로 문구 용품을 지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의 기관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2011-3-9)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중도포기 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에 대하여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았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인구학적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실수,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사이버섹스 중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집단별 차이를 보기 위하여 Scheffé 사후검정을 이용하였다. 성지식, 성태도,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6,000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21±2.3세이며 여학생 3,362명(56.0%), 남학생이 2,638명(44.0%)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2,133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학생이 1,863명(31.1%), 3학년 학생이 1,187명(19.8%), 4학년 학생이 817명(13.6%)이었다. 결혼여부로는 5,951명(99.2%)이 미혼이었고, 인문계 학생이 3,401명(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연계 학생이 2,111명(35.2%), 예체능계가 488명(8.1%)로 가장 적었다. 전체 응답자 중 2,821명(47.0%)가 종교를 가지고 있

Table 1. Demographics of the Sample

N=6,000

Variable		n (%)	Mean (SD)
Age			20.96 (2.3)
Gender	Female	3,362 (56.0)	
	Male	2,638 (44.0)	
Grade level	Freshman	2,133 (35.6)	
	Sophomore	1,863 (31.1)	
	Junior	1,187 (19.8)	
	Senior	817 (13.6)	
Religion	No	3,179 (53.0)	
	Yes	2,821 (47.0)	
Marital status	Single	5,951 (99.2)	
	Married	49 (0.8)	
Major field of study	Human science	3,401 (56.7)	
	Natural science	2,111 (35.2)	
	Art course	488 (8.1)	
Economic status	High	887 (14.8)	
	Medium	4,590 (76.5)	
	Low	523 (8.7)	
Living arrangement	Living with family members	2,998 (50.0)	
	Living alone	1,087 (18.1)	
	Living at dorm	862 (14.4)	
	Living with friends	423 (7.1)	
	Living with siblings	250 (4.2)	
	Lodging	233 (3.9)	
	Others*	147 (2.5)	

* Others include living in relative's house and etc.

였으며, 경제생활 수준으로는 '중간'이라고 말한 사람이 4,590명(76.5%)으로 가장 많았고, '상'이라고 말한 사람이 887명(14.8%), '하'라고 말한 사람이 523명(8.7%)이었다. 주거형태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사는 경우가 2,998명(5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혼자서 자취하는 학생이 1,087명(18.1%)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숙사에 사는 학생이 862명(14.4%)로 많았다.

2. 대상자의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는 평균 27.68 (SD=12.75)로 31점부터 중독으로 규정한다고 할 때 비교적 낮은 점수로 측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비중독 집단 78.1% (4,689명)가 비중독 집단, 경미(mild) 중독집단 12.6%(755명), 중등(moderate) 중독집단 8.8% (526명), 그리고 중증(severe) 중독집단 0.5%(30명)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 중 9.3%가 중등 혹은 중증 중독

집단에 속하였다.

3.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섹스 중독

대상자의 성별, 종교유무, 전공분야, 결혼 여부, 경제생활 수준에 따른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 전공, 경제생활 수준에 따라 사이버섹스 중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이버섹스에 더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고($t=23.62, p<.001$). 전공분야에 따라서는 예체능계가 가장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문계, 자연계 순으로 나타났다($F=32.73, p<.001$). 경제생활 수준이 '중'인 학생이 '상'인 학생 보다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2.73, p<.05$). 종교 유무와 결혼 여부는 사이버섹스 중독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2. Cybersex Addiction Status by Demographic Factors N=6,000

		Mean (SD)	t or F	p
Total		27.68 (12.75)		
Gender**	Male	32.08(14.85)	23.62	.000
	Female	24.23 (9.49)		
Religion	No	27.97 (12.94)	1.87	.061
	Yes	27.36 (12.52)		
Marital status	Married	31.86 (14.78)	1.99	.053
	Single	27.65 (12.73)		
Major field of study	Human science ^a	28.17 (13.02)	32.73	.000 (a<c, b(a,c)
	Natural science ^b	26.82 (11.81)		
	Art course ^c	31.60 (16.54)		
Economic status	High ^a	26.43 (11.34)	5.26	.005 (a<b)
	Medium ^b	27.94 (13.01)		
	Low ^c	27.57 (12.56)		

Note. t-test was used for gender, religion, and marital status and ANOVA was used for major field of study and economic status. Scheffé's test were done for ANOVA post-hoc analysis.

4.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사이버섹스 중독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지식 평균은 22.93 (SD=3.22), 성태도는 126.5 (SD=14.19),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는 27.68 (12.75)로 각각 나타났다. 이 세 변수가 모두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성지식이 많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r=.313, p<.001$)이었으며, 성지식이 많을수록 사이버섹스에 덜 중독되어($r=-.238, p<.001$) 있었고,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사이버섹스에 덜 중독되어($r=-.272, p<.001$)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Cybersex Addiction N=6,000

Variables	1	2	3
1. Sexual knowledge	-		
2. Sexual attitude	.313**	-	
3. Cybersex addiction	-.238**	-.272**	-

** $p<.001$.

IV. 논 의

본 연구 결과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 분포가 전체의 21.9%였으며 그 중 중등 혹은 중증이 9.3%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을 조사한 Lee (2003)의 7.8%와 Kim (2003)의 8.2%보

다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학 종류, 전공 분야에 있어서 다양하고 큰 표본을 수집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결과의 차이가 단순히 청소년과 대학생의 차이에서 온 것인지, 자료수집 과정의 차이에서 온 결과인지는 추후 반복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섹스 중독 차이를 분석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사이버섹스 중독이 높았다(Kim, 2003; Koo & Kim, 2007; Lee, 2003). 일반적으로는 남자는 영상 또는 이미지를 이용한 사이버섹스를 선호하는 반면, 여자는 아는 사람과의 이메일 혹은 채팅룸을 이용한 사이버섹스를 더 많이 하는데(Schneider, 2000) 한국에서는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Kim (2003)의 연구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실업계 고등학생 (7.6%)보다는 인문계 고등학생(8.9%) 이 더 많이 사이버섹스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성향, 학업 성적, 학업 환경,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인터넷 접속 시간 등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대학생의

학업환경과 전공 여부에 따라라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리할 수 있었고,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함께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접속 횟수 혹은 시간, 인터넷 중독 정도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경제생활 수준에 따른 중독의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생활 수준이 중인 대학생들이 경제생활 수준이 상인 대학생들보다 사이버섹스 중독이 유의하게 많게 측정되었다. Koo와 Kim (2007)의 청소년 사이버섹스 중독 연구에서는 경제생활 수준에 따른 사이버섹스 중독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학생은 청소년기보다 상대적으로 자유시간이 많으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본인 혹은 가족의 경제생활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수준이 중인 대학생들이 상인 대학생들보다 인터넷 접속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고 추측할 수 있겠으나,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추후연구가 필요하겠다. Yoon (2008)이 3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률이 종교가 없는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적게 나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크기의 차이로 인한 차이로 추정할 수 있으나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지식, 성태도, 사이버섹스 중독과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였고($p < .001$)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었으며,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사이버섹스에 덜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와 Kim (200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가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과 Kim (2008)의 연구에서는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성지식과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진 대학생들이 성행동은 많이 하지만, 사이버섹스 중독률은 낮다고 유추할 수 있지만, 아직은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성지식과 성태도가 성행위 혹은 사이버섹스 중독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면, 사이버섹스가 성행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하고, 더 깊은 이해를 위하여 성지식, 성태도 중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관련이 높은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이를 성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지식이 부족한 항목을 파악하여 성 교육 시 그

내용을 더 강화하여 교육한다든지, 소규모 집단 토론 시 자신의 성태도를 타인의 것과 비교할 기회를 주는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

Koo와 Kim (2007)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섹스와 성태도를 연구하였는데, 성태도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수준을 비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성별, 학년, 음란물 접속 횟수가 성태도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다고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이런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교육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대사회 대학생의 성태도는 개방적이며 성지식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Shin, Park, & Hong, 2010). Shin 등(2010)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성태도를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기준으로 환산을 하여 보면 138.78 (SD=11.50)로 본 연구의 결과(M=126.5, SD=14.19)보다 높게 나왔고, 본 연구의 대학생들의 성태도가 덜 개방적인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다. 또한 성지식도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26.8점(SD=5.83)으로 본 연구의 결과(M=22.93, SD=3.22) 보다 높게 측정되었었다. 이 결과의 차이는 자료수집 장소와 자료의 크기에서 오는 결과의 차이로 추정해볼 수 있겠으나, 다양한 도구와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반복 측정해볼 필요가 있겠다.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연구, 예방책 혹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섹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의 개발과 적용도 시급하다. 성교육의 내용은 과거에는 남녀 몸의 구조나 생리구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법', '임신과 출산, 피임', '결혼 및 이성교제' 등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다(Lee, 2004). 내용의 전달을 위해서는 정규 학과목의 개설이 유용할 것이며 (Lee, Jeon, Kim, & Jung, 2000), 대규모 강의도 필요하지만 소규모 집단상담 혹은 토론을 통한 정보 전달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Lee, 2004). 현재 대학생의 성건강과 관련된 핵심교양 과목이 개설되어 그를 통하여 올바른 성지식을 전달하는 대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지식의 보급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는데, Um과 Lee (2011)가 온라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본 결과 성지식, 성태도, 성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섹스에 대하여 추후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방적으로 성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Remington & Gast, 2007). 예방교육 시에는 사이버섹스 중독과 관련된 위험 증후들, 예를 들면 감정의 변화, 인간관계 방해, 죄책감, 제어력 상실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Remington & Gast, 2007). 또한 학교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혹은 국가 정책을 통하여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혹은 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 혹은 사이버섹스로 연계하는 정보가 이메일, 포털 사이트, 혹은 채팅방을 통하여 유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 정도는 남자 대학생이, 예체능 전공 학생이, 경제 수준이 중인 대학생이 사이버섹스 중독에 유의하게 더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부분적으로 독립성을 획득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재하기는 쉽지 않으나, 대학생의 성생활과 사이버섹스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문화적,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사, 보건교사, 간호학과 교수들이 중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 과목 개설 등에 주축이 되어 활동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사이버섹스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상자들은 솔직하게 응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이버섹스 중독을 측정할 본 연구에서 쓰인 도구는 미국에서 개발되었고, Kim (2003)이 수정할 당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학생의 문화적 특성과 물리적·정신적 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제한점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Proportional quota sampling을 사용함으로써 표본에서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 차이를 차단할 수 있었으며 6,0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큰 표본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청소년의 사이버섹스에 대한 연구와 그 대책에 대하여 논한 연구는 있었으나,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방과 치료에 대한 중재 개발 시 인구학적 특성들을 감안하여야 하고, 성지식과 성태도에 대한 사정과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 실태와 그 형태, 그리고 그들만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질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 대학생이 어떤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대학시절 사이버섹스 중독을 가졌을 경우, 졸업 후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추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도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교내 사이버섹스 예방 혹은 치료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 상담실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관련된 자원, 예를 들면 전문 책자 혹은 자조 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운영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 자원을 보급하는데 있어서도 대규모와 소규모 과목개설 혹은 인터넷 프로그램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겠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학생의 문화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감안하여 개발 혹은 수정한 사이버섹스 중독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통하여 한국 대학생의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그와 관련된 요인과의 관계성도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Cooper, A., Delmonico, D. L., Griffin-Shelley, E., & Mathy, R. M. (2004). Online sexual activity: An examination of potentially problematic behaviors. *Sexual Addiction and Compulsivity, 11*(3), 129-143. <http://dx.doi.org/10.1080/10720160490882642>

- Ha, J. Y., & Kim, K. H. (2009).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in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en's Health, 10*(1), 17-32.
- Havighurst, R. (1972). *Development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 McKay Co.
- Jang, J. N., & Choi, Y. H. (2012). Pathways from family strength and resilience to Internet addiction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tres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375-388.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3.375>
- Jeon, G. S., Lee, H. Y., & Rhee, S. J. (2004).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1*(1), 45-68.
- Jung, E. S., & Shim, M. S. (2012). Family function and Internet addiction in low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2), 328-340.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2.328>
- Kang, H. Y. (200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variables forecasting sexual inter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 Kim, M. (2003). A study on the reality of internet addiction and cyber-sexual addi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5*(1), 53-83.
- Kim, J. H., & Kim, K. S. (2008).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1), 123-138.
- Kim, M., & Kwak, J. B. (2011). Youth cybersex addiction in the digital media era. *Soonchunhyang Journal of Humanities, 29*, 283-326.
- Koo, H. Y., & Kim, S. S. (2007). Relationships among cybersex addict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7), 1202-1211.
- Korea Statistics (2011). *2011 Adolescent statistics*. Retrieved December 21, 2012, from the Korea Statistics web sit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47163
- Lee, H. J. (2004). Policy research for college students' sexual education. *Pukou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Review, 20*, 5-16.
- Lee, I. S., Jeon, M. Y., Kim, Y. H., & Jung, M. S. (2000). Knowledge in sex and needs of sex education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4*(2), 382-395.
- Lee, S. J. (2003). A study on psychosocial trait and mental health of the adolescent's addiction to cybersex. *Ko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55*(11), 341-364.
- Lim, E. M., Park, S. M., & Jang, S. S. (2007). The analysis of the college students' Internet overuse regulation process through experience comparison between over-users and recovered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3), 819-838.
- Oh, W. O. (2005). The influence of Internet expectation and self-efficacy on Internet addic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9*(2), 339-348.
- Park, J. Y., & Kim, N. H. (2013). Relationships

- between physical activity,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7(1), 153-165.
- Remington, D., & Gast, J. (2007). Cybersex use and abuse: Implications for health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38(1), 34-40. <http://dx.doi.org/10.1080/19325037.2007.10598940>
- Schneider, J. P. (2000). A qualitative study of cybersex participants: Gender differences, recovery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rapist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7(3), 249-278. <http://dx.doi.org/10.1080/10720160008403700>
- Schneider, J. P. (2001). The impact of compulsive cybersex behaviors on the family.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18(1), 329-354. <http://dx.doi.org/10.1080/146819903100153946>
- Schwartz, N. F., & Southern, S. (2000). Compulsive cybersex: The new tearoom. *Sexual Addiction and Compulsivity*, 7(1), 127-144.
- Shin, K. R., Park, H. J., & Hong, C. M. (2010).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from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2(4), 446-456.
- Um, H. Y., & Lee J. W. (2011). Online sex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1), 127-150.
- Watters, S. O. (2001). *Real solutions for overcoming Internet addiction*. Ventura, Vince Books.
- Yoon, Y. J. (2008). *College students' cybersex addiction and related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dong University, Pohang.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John Wiley & Sons.
- Young, K. S. (2001). *Tangled in the WEB: Understanding cybersex from fantasy to addiction*. Bloomington: 1st Books.
- Young, K. S. (2004). *Getting web sober: Help for cybersex addicts and their loved ones. An exclusive guide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 Retrieved May 18, 2013, from Web site: <http://www.netaddiction.com/articles/cyberSex.pdf>
- Young, K. S. (2008). Internet sex addiction: Risk factors, stages of development, and treat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2(1), 21-37. <http://dx.doi.org/10.1177/0002764208321339>

Cybersex Addict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nd Relationships of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Park, Hyojung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Kang, Sook Jung (Visiting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cybersex addiction, demographic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cybersex addiction, and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cybersex addict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Methods:** Using a cross-sectional study design, 6,000 college students were recruited through proportional quota sampling from May 2011 to October 2011. **Results:** Almost 10 percent(9.3%) of the participants had moderate or severe addiction to cybersex. The level of cybersex addiction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gender, major, and economic status. Significant association was observed betwee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cybersex addiction. **Conclusion:** The significant demographic factors mentioned above, as well as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should be factored in when designing interventions for cybersex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Conduct of more qualitative and longitudinal research on this topic is needed in order to prevent and to intervene in cybersex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Students, Internet, Sex, Addic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grant (11-3).*